

미래 사회 변화와 新 건설 시장

- CERIK 개원 10주년 국내 세미나 주제 발표 초록 -

미래 한국의 도시 환경 - 공존 이 키워드

- 도시의 개성화,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도시공동체 형성 등이 목표이자 과제 -



이 글은 건축과 도시의 전문가로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상식적인 사유와 판단능력으로 예측 가능한 20~30년 후 근미래(近未來)의 도시 환경을 그려봄으로써 발전적인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비하고 자하는 목적을 가진다.

공존의 미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우리 사회는 과거의 고착적인 사회나 문화적 속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국제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성과 개방적 성향의 잠재력을 결합하여 혼합적인 창조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여러 진리들이 조합된 복합적 성격과 질서의 시대로, 개인의 가치와 인류 공통의 가치인 공동체 유지의 현명한 방법을 모색하는 이중적인 성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의미로 미래의 우리 도시는 '공존'이라는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과 보존의 공존

도시의 집약화

도시의 고밀화 현상과 집중은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집약의 특성으로 당분간 진행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규모와 자원, 자생력을 갖춘 대도시들은 기성 시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집약화 개발(Compact City) 주를 이룰 것이고, 이는 상업지역의 고층화와 주거 지역의 고밀화로 표현될 것이다. 이런 개발 방식은 도시 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계획에 의한 단계적 개발과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도시 관리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전원형 소규모 자족 환경

도시 주변 지역은 교통 해결을 전제로 상업, 위락, 휴식의 특별 기능 공간으로서 제한적으로 개발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족적 커뮤니티의 가치와 고급의 생활 환

경을 조성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지로 개발 될 것이다.

도심 활성화

도시 재생의 목표를 위해 과거의 유산과 역사, 문화, 교육적 자원을 가진 도심부를 보존하고 정비함으로써 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도심의 임시적인 거주지 성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과 규모의 주거 복합 건축물이 건립될 것이다. 도심의 주택은 편의성을 강조한 고층 빌딩형, 쾌적성을 위한 내부 지향적 소규모 중저층 집합 주택이라는 두 가지 대안이 주를 이룰 것이다.

기술과 자연의 공존

디지털 환경과 아날로그 공간

미래에는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기술의 활용은 확대될 것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건축물과 도시 환경의 현격한 변화가 도래하지는 않을 것이

다.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이나 유비쿼터스(ubiquitous) 등의 개념은 설비 기술이나 이용자의 활용방법에 관한 미래상일 뿐 공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영상 매체의 보급과 활용은 대중의 ‘보는 감각’을 예민하게 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환경 공생 도시

인공환경과 자연환경의 조화, 그리고 친환경 계획은 환경 파괴로 재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 더욱 중요하게 취급될 것이다. 특히, 악화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속의 녹지와 숲, 하천을 통한 생태계 복원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또한, 환경 부하가 적은 재료나 환경 친화 소재와 공법의 도입은 특허권과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건설업계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도시와 건축의 공존

도시 설계의 실현

도시 건축적 사업의 확대와 대중들의 도시 변화에 대한 관심으로 전문 영역으로서의 도시 설계와 도시 설계가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평면적인 기능 구분, 효율성을 강조한 교통 처리 등의 도시 계획 내용은 기성 시가지에서는 주요 관심사가 아닐 것이고, 건축적 검증에 의한 도시의 부분적인 수정과 개발, 정비가 미래의 중요한 도시 설계의 내용이 될 것이다. 또한, 도시의 조건을 세심하게 고려한 도시 건축, 외부 공간에서의 장소성과 도시 공간의 역사성,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도시 경관과 질서가 강조될 것이다.

도시의 공공성 회복

개별 개발에 의한 건축물과 주변 공간의 사유화, 이에 따른 도시의 장소성 상실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 환경의 공유화라는 목

표를 강조할 것이고, 이를 위해 도시의 공공 공간 계획, 보행 환경의 개선, 건축물과 가로와의 관계 설정, 도시 공간과 단지의 개방성 확보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시가지의 주거지는 자폐적인 주거 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방적, 기능 복합적 집합 주택지로 변화할 것이고, 도시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로와의 관계를 중시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개발 방향으로 유도하는 제도와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복합적 토지 이용과 복합 기능 공간

기능 분리 원칙과 지역제에 의한 용도 순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에는 복합 용도 지역의 지정이나 복합 기능 건축물에 의한 용도 복합이 보편화될 것이다. 토지의 복합적 이용과 복합 기능 공간의 추구는 도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비싼 지가와 부지면적의 한계를 가지는 대도시 중심 부나 부도심, 역세권 등 인구 밀집이 가능하고 고밀 개발이 요구되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계획과 참여의 공존

계획적 개발과 관리

선 계획 · 후 개발이라는 도시 계획의 기본 목표가 강조될 것이고, 계획과 개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계획 분야의 통합도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 도시 조건을 활용하여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도록 도시 형태와 기능을 수정하는 정비와 관리, 재생, 운영에 관한 과업이 부각될 것이다. 미래의 도시 계획은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대담한 시도보다는 도시 자원의 검증과 활용 방법을 탐구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 취향의 공간

주 5일 근무제의 정착과 여가 시간의 확대로 도시민의 여가 활동을 위한 상업과 위락

시설이 다양화되고 고급화될 것이다. 전문화된 상업, 위락 시설은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교외에 개발되고, 일반적인 여가 활동을 위한 상업과 위락 공간은 복합 기능의 건축물 군으로 도심에서 제공될 것이다. 건강 중시와 웰빙(well-being) 유행, 자녀 수의 감소와 핵가족화의 정착으로 문화와 예술, 체육, 교육 시설의 수요는 증대될 것이고, 이러한 공간으로서 기본 여건과 분위기를 갖춘 도심이 활용될 것이다.

주민 참여와 공동체 회복

도시 공동체 위기라는 병리적인 사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 공공 시설의 공동 운영과 관리, 자치 활동 등에 동참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될 것이고, 노령 인구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여가 시간의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 여론을 반영한 시설 프로그램이 중시되고 미완성 공공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이 자치적으로 활용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도 적용될 것이다.

미래 도시 환경의 과제

여러 가치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혼합적인 창조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에는 ‘개발과 보존의 공존’ 조건이 도시의 개성화로, ‘자연과 기술의 공존’ 조건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의 조성으로, ‘도시와 건축의 공존’ 조건이 도시 건축의 실현으로, 그리고 ‘계획과 참여의 공존’ 조건이 도시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목표와 과제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래에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개성을 가진 건강한 도시 환경과 도시 공동체

의 문화적 주체성이 확립된 건전한 사회가 조성될 것이다. 



양우현
중앙대 건설대학 건축학부 교수